

1.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?

- ① 롱스터(lobster), 시그널(signal), 지그재그(zigzag)
- ② 재즈(jazz), 마니아(mania), 브리지(bridge)
- ③ 보트(boat), 스위치(switch), 인디안(Indian)
- ④ 유니온(union), 톱 클래스(top class), 휘슬(whistle)

2. 다음 중 문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?

- ① 問征夫以前路
- ② 子將安之
- ③ 誰能與我同
- ④ 孰爲好學

3. 다음 중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?

- ① 마을 - 마실
- ② 예쁘다 - 이쁘다
- ③ 새초롬하다 - 새치름하다
- ④ 부스스하다 - 부시시하다

4.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평음, 경음,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.
-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‘ㄲ, ㄴ, ㄷ, ㄹ’도 포함된다.
- ③ ‘ㅈ, ㅊ, ㅊ’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.
- ④ ‘ㅍ’와 ‘ㄷ’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[j] (혹은 [y]), [w]이다.

5. <보기>는 「한글맞춤법」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의 일부이다.

㉠, ㉡, ㉢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<보기>

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.

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
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고랫재 컷밥 ㉠

(2)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것
뒷머리 아랫마을 ㉡

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것
도리깃열 뒷웃 ㉢

- | | | |
|-------|-----|-----|
| ㉠ | ㉡ | ㉢ |
| ① 못자리 | 멧나물 | 두랫일 |
| ② 쳇바퀴 | 잇몸 | 훗일 |
| ③ 잇자국 | 틔마루 | 나뭇잎 |
| ④ 사갓밥 | 갯날 | 예삿일 |

6. 다음 중 「한글맞춤법」에 맞는 문장은?

- ① 인삿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.
- ②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고 있다.
- ③ 생각치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.
- ④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7. 다음 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.
- ②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.
- ③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.
- ④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 행위도 나타내는데,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.

8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?

-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.
-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.
-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.
-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.

9.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ㅅ’은 ‘ㅆ’보다는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.
- ②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.
- ③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‘가’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.
- ④ 중세국어의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.

10. 다음 중 국어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?

- ㉠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.
- ㉡ 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한다.
- ㉢ ‘물이 얼음으로 되었다.’의 문장성분은 주어, 부사어, 서술어이다.
- ㉣ 부사어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.
- ㉤ 체언에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된다.
- ㉥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.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㉠, ㉡, ㉢ | ② ㉡, ㉢, ㉣ |
| ③ ㉢, ㉣, ㉥ | ④ ㉣, ㉤, ㉥ |

11.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?

- 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.
- ②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.
- ③ 잇따라 불러들였다.
- ④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.

12.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?

- ①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단다. → 두 자리 서술어
- ② 나 엿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. → 두 자리 서술어
- ③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. → 세 자리 서술어
- ④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. → 세 자리 서술어

13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?

철수와 영수는 고등학교 친구다. 그러나 졸업 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. 지금도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은 보지만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간다.

- ① 징건하다 ② 버름하다
- ③ 투미하다 ④ 쇠락하다

14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. - 首想
- ② 그가 사주, 관상, 수상에 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. - 手象
- ③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던 사람이었다. - 樹狀
- ④ 그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뽑혔다. - 受賞

15. 다음 중 <보기>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?

<보기>

‘새말’은 바로 ‘新村’이나 ‘新里’, ‘新洞’이 될 것이다.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‘새말’이 있다. 특정 마을에서 분파되어 나오면 거기가 새말(새마을)이 되는 셈이다. 새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을 이름으로 ‘新基’, 혹은 ‘新基村’이 있다. ‘新基’라 적고 ‘새터’라 읽었으며, ‘新基村’이라 적고 ‘새터말’이라 읽었다는 것이다.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이다. 서울 지하철(5~8호선) 역명은 이러한 석독(釋讀)의 정신과 관계된다. 성북구 석관동(石串洞)의 ‘돌고지’, 은평구 신사동(新寺洞)의 ‘새절’, 서대문구 ‘아현동(兒峴洞)’의 ‘애오개’ 등이 유명하다.

- ① 성옥: ‘漢陽(한양)’이라 적고 ‘서울’로 읽었을 확률이 높겠군.
- ② 수연: ‘모래내’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석독하면 ‘사천(沙川)’이 되겠군.
- ③ 경아: ‘大田(대전)’이라 적고 ‘한밭’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, ‘한밭’이 바로 석독이군.
- ④ 재화: 광해군 때의 상궁 ‘김개시(金介屎)’가 있었는데 그 ‘개시’가 바로 ‘개똥’이야. ‘개똥’은 음독자로 이해해야 하는군.

16.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묶인 것은?

- ① 소나무, 빛나다, 살코기, 나가다
- ② 접갈, 굶주리다, 부슬비, 김불다
- ③ 감발, 묵발, 오가다, 새해
- ④ 큰집, 늦더위, 안팎, 출랑새

17. 다음 중 「표준어 규정」에 맞게 발음한 문장은?

- ① 불법[불법]으로 고가[고까]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고가[고까]도로로 도망치고 있다.
- ② 부정한 사건이 묻히지[무치지] 않도록 날날이[날나치] 밝혀 부패가 끝이[끄치] 나도록 해야 한다.
- ③ 꽃 위[꼬 뒤]에 있는[인는] 나비를 잡기 위해 나비 날개의 끝을[끄출] 잡으려고 했다.
- ④ 부자[부:자]간에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 모자[모자]가 들러 서로 모자[모:자]를 선물했다.

18.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?

혼종-어(混種語)[혼: --] 「명사」 『언어』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

- ① 각각, 무진장, 유아무야
- ② 과연, 급기야, 막무가내
- ③ 의자, 도대체, 언감생심
- ④ 양파, 고자질, 가지각색

19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중독을 떨쳐버리지 않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? 좀 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나는 갓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. 그런데 가끔 원두가 떨어진 걸 깜빡할 때도 있다.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두통이 생기고, 화가 나고, 집중도 못한다.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급단현상을 느끼는 커피 중독자인 것이다.

- ① 中毒-決定-集中-禁斷
- ② 重毒-決定-執中-錦端
- ③ 中毒-結定-集中-禁斷
- ④ 重毒-結定-執中-錦端

20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

죽식이 能히 밥 먹거든 그르쥬딘 올흔손으로써 헝게 헝며 能히 말헝거든 스나히는 썰리 딛답헝고 겨집은 느즈기 딛답게 헝며 스나히 썩는 갓츠로 헝고 겨집의 썩는 실로 홀디니라

- ① 그르쥬딘: 가르치되
- ② 느즈기: 천천히
- ③ 갓츠로: 가장자리로
- ④ 홀디니라: 할 것이니라